보험중개사(공통) - 보험관계법령 등 - 1쪽

- 1. 보험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모집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.
 - ②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 - ③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(출자지분을 포함한다)의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.
 - ④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
- 2.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?
 - ① 동물보험
- ② 보증보험
- ③ 지식재산보험
- ④ 기술보험
- 3.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업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?
 - ①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
 - ②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
 - ③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것
 - ④ 자산상황·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,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
- 4. 다음 중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?
 - ① 보험회사의 감사위원 ② 보험설계사
 - ③ 보험중개사
- ④ 보험회사의 직원
- 5.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?
 - ① 「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은행
 - ②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 - ③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
 - ④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

- 6.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.
 - ②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.
 - ③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할 필요가 없다.
 -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, 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,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.
- 7.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- ①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, 그 밖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 - ③ 보험계약자는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.
 - ④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보험 회사는 그 설계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8. 다음 ()안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?
 - (a) 또는 (b)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(累計額)이 그 (a) 또는 (b)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(c)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(a) 또는 (b)는 자기계약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.
 - ①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, 50
 - ② 보험설계사, 보험중개사, 50
 - ③ 손해사정사, 보험설계사, 30
 - ④ 손해사정사, 보험중개사, 30

9.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중개사가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·보수와 그 밖의 대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알릴 의무는 없다.
- ③ 보험중개사는 결약서 사본을 갖춰두어야 한다.
- ④ 보험중개사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0. 보험업법상 보험요율산출에 있어 보험회사가 지켜야할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(給付)에 비하여 지나 치게 높지 아니할 것
- ②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높을 것
- ③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
- ④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

11. 상법상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
- ① 상법에 따르면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족하나 민법에 따르면 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.
- ② 상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상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④ 상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 위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.

12.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그 타인은 보험계약체결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.
- ②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타인은 상법 제653조의 위험유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.
- ④ 타인은 손해방지의무는 없으나 사고발생통지의무는 진다.

13.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증권은 보험금청구권을 표창하는 증서로서 권리의 발생, 이전, 행사의 전부에 증서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이다.
- ②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증권의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④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.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.

14.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.
- ③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는 있으나 일부만을 해지할 수는 없다.
- ④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 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5. 상법상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다.
- ② 보험계약성립 후 2월 안에 보험료 지급이 없고 다른 약정도 없어 자동해제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부활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보험자는 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④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 보험 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.

- 16.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.
 - ②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현저한 것이어야 한다.
 - ③ 상법은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.
 - ④ 그 통지는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상관이 없다.
- 17.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이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- ① 상법에 규정이 없다.
 - ② 이 의무는 고지의무와 같은 일종의 간접의무로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③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④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.
- 18.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다음에 열거된 사실과 달리 약정할 수 없는 것은?
 -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②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.
 - ③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- ④ 보험사고발생 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.

19.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보험계약은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적용이 제외된다.
- ② 재보험계약은 보험의 보험이므로,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.
- ③ 재보험에서도 보험자대위권이 인정된다.
- ④ 재보험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의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.

- 20. 상법상 보험계약당사자의 의무 위반의 효과가 잘못 연결된 것은?
 - ① 보험계약 체결 후 초회보험료가 미지급된 상태로 2월이 경과한 경우 - 법정해제
 - ② 고지의무 위반 보험자의 계약해지권
 - ③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
 - ④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- 보험계약자의 취소권

21. 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-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- ③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- ④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
22.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.
- ②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.
- ③ 보험계약자의 사기(詐欺)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,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 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23. 상법상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.
 - ②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득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.
 - ③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.
 - ④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이를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24. 상법상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- ③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- ④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

25. 상법상 책임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책임보험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보험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.
-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 하다
- ③ 책임보험자는 방어비용은 보상하지만 피보험자가 부담한 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할 책임이 없다.
- ④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보험금청구권설이 통설·판례이다.

26. 상법상 책임보험에서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한다.
- ②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는 이상,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.

27. 상법상 자동차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- ③ 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.
- ④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, 차대 번호, 차형년식과 기계장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
28.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보험수익자 지정·변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.
- ②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. 그러나,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한다.
- ③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 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-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·변경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29. 상법상 단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단체 구성원의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.
- ②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증권의 발행·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단체규약에서 심신상실자에 대하여 단체구성원 자격을 인정한 때에는 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다.
- ④ 단체규약에서 단체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의 사망보험 계약체결에 대한 서면동의가 필요 없다.

보험중개사(공통) - 보험관계법령 등 - 5쪽

- 30. 상법상 상해보험계약에 준용되는 생명보험계약 조항이 아닌 것은?
 - ① 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.
 - 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 -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-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.
- 31. 다음 중 인적 손인(human perils)에 속하지 않는 것은?
 - ① 인종차별
- ② 흡연습관
- ③ 인간의 실수
- ④ 태업
- 32. 다음 중 보험대상 위험의 요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?
 - ① 우연발생적 손해
 - ② 측정가능한 손해
 - ③ 손해의 크기는 제한이 없음
 - ④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한 보험료
- 33. 위험관리 기법은 크게 나누어 위험의 회피, 보유, 전가 그리고 통제가 있다. 다음 중 위험의 통제에 대한 설명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?
 - ① 위험의 통제는 발생빈도를 줄이고자 하는 손해예방 (loss prevention)과 손해의 크기를 줄이고자 하는 손해축소(loss reduction)로 구분할 수 있다.
 - ② 손해의 예방으로는 음주단속을 들 수 있다.
 - ③ 손해의 축소 방안으로는 안전벨트 착용을 들 수 있다.
 - ④ 손해의 예방으로는 주요 자료나 도면 등을 분리보관하기 등이 있다.
- 34. 이자율위험(interest rate risk), 환위험(foreign exchange risk)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위험관리기법은?
 - ① 캡티브보험사(captive insurer) 설립
 - ② 위험보유(risk retention)
 - ③ 헷장(hedging)
 - ④ 손실감소(loss reduction)
- 35. 다음 중 사후적인 위험비용(ex-post cost of risk)이 아닌 것은?
 - ①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
 - ② 위험으로 인한 투자 왜곡 및 제약
 - ③ 병원치료로 인한 소득 감소
 - ④ 영업중단에 따른 기업수익의 감소

- 36. 다음 중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대상 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
 - ② 상해로 인해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
 - ③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300만 원 이하의 금액
 -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
- 37.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신형 연금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법정 비과세 요건은 연금수령시점에서 충족하면 된다.
 - ② 연금수령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.
 - ③ 연금 외 다른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.
 - ④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, 최초 연금지급 개시 이후 사망일 까지 중도해지할 수 없어야 한다.
- 38. 다음 공적연금과 관련한 연금소득의 과세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회사 납입분 외에 본인 부담분은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된다.
 - ② 매월 연금소득을 지급하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차년도 1월에 연말정산한다.
 -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때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.
 - ④ 공적연금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.
- 39. 다음 퇴직소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, 퇴직금제도가 있다.
 -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.
 - ③ 법인의 임원은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면 앞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받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.
 - ④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40. 다음 중 재무상태 분석 시 자산부채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?
 - ① 전세자금대출
- ② 대출상환금
- ③ 전세보증금
- ④ 자동차